

편집 및 발행인 : 조정희 원장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913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목 차

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인도-중동 해상물류 차질...전쟁 여파로 선사 예약 중단

▶ 공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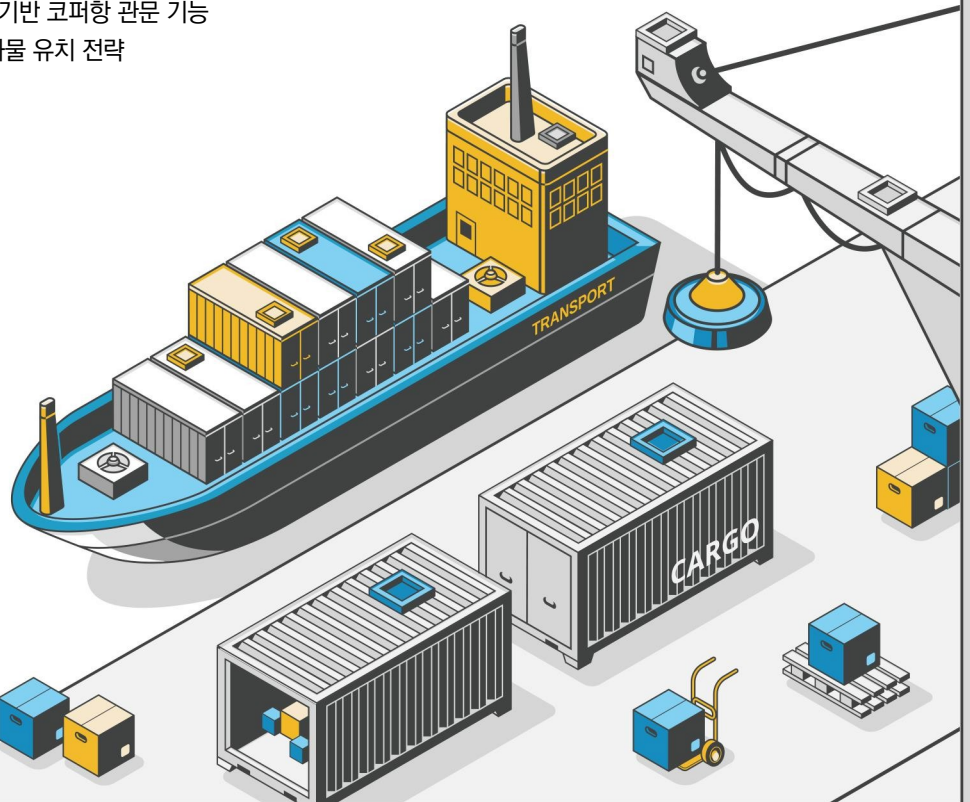
- 『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』 모집 공고
- 『국제물류 정보포털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▶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- 멕시코 폭력 사태로 운송 차질...美·멕시코 국경 물류 지연 우려

▶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중동 무력 충돌 격화... 항공·해상 물류 차질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흔들
- 슬로베니아, TEN-T 기반 코퍼항 관문 기능 강화...지역 공급망 회복 유치 전략



인도-중동 해상물류 차질...전쟁 여파로 선사 예약 중단

- ▶ 이란-미국-이스라엘 군사 충돌 여파로 인도-중동 해상물류 흐름이 급격히 위축
 - 인도와 중동 간 항로를 운항하는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서비스 중단 및 신규 화물 예약을 일시 중단하면서 해당 물류 회랑의 공급망 흐름이 급격히 위축됨
 - 중동은 인도의 핵심 교역권역 중 하나로, 특히 아랍에미리트(UAE)는 인도의 두 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임
 - 양국은 2022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,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비석유 부문 양자 교역을 1,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
- ▶ 주요 글로벌 선사들, 인도 아대륙-걸프 항로 신규 예약 중단
 - Maersk는 인도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스리랑카에서 UAE, 바레인, 카타르, 이라크,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(담맘/주바이일 항만)로 향하는 신규 화물 예약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함
 - MSC(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), Hapag-Lloyd, ONE(Ocean Network Express) 등 주요 선사들도 중동항 모든 화물 예약을 중단함
 - ONE은 현재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해서는 항차별로 상황을 검토하며 대응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함

- ▶ 선사들은 전쟁할증료(WRS, War Risk Surcharge) 등 추가 비용 부과도 발표
 - 주요 선사들은 중동 항로에 대해 1,500~3,000달러 수준의 WRS를 발표함
 - Maersk는 해당 지역에 대해 TEU당 1,800달러, FEU당 3,000달러,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3,800달러의 긴급 운임 인상(emergency freight increase)을 적용한다고 발표함
 - 이에 따라 인도-중동 물류비용 상승과 운송 불확실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

- ▶ 인도 항만에서는 중동항 수출 화물 적체 현상 지속
 - 화물 예약 중단과 서비스 차질로 인해 중동항 컨테이너가 인도 주요 항만에서 점차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
 - 인도 컨테이너선사협회(Container Shipping Lines Association India)는 중동 목적지 화물이 인도 항만 전반에 걸쳐 쌓이고 있다고 설명하며,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, 항만 혼잡과 추가 물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함

- ▶ 중동과의 교역 차질은 인도 대외 수출 흐름 전반에도 파급 가능
 - 과거 홍해 사태 당시 선사들이 수에즈 항로를 회피하면서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이 단기간에 120% 이상 상승한 사례도 있어, 해상 병목 구간(chokepoint)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은

- 물류비 상승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
- 인도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동을 경유하거나 중동 시장과 연계되어 있어 공급망 차질이 교역 흐름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
- 특히 냉동·신선 화물과 같이 운송 시간이 중요한 화물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
- 또한 홍해 항로 불안정으로 일부 서향 항로가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면서 유럽향 인도 농산물 수출에서도 운송 일정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

➤ **지정학적 리스크가 특정 항로의 물류 흐름을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**

- 선사들의 예약 중단과 할증료 부과는 해상 운송이 외부 안보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
- 중동과 같은 핵심 교역권역에서의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이에 따라 주요 해상 물류 축에서는 항로 리스크 관리와 운송 경로 다변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
- 이번 사례는 해상 물류 네트워크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

멕시코 폭력 사태로 운송 차질... 美·멕시코 국경 물류 지연 우려

- ▶ 멕시코 카르텔 수장 사살로 인한 전국적인 폭력 사태로 일부 도로가 봉쇄되면서 美~멕시코 국경 간 무역 및 주요 물류 회랑에 수일간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
 - 최근 멕시코에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(Jalisco New Generation Cartel, CJNG)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(일명 '엘 멘초')가 멕시코 군 특수작전 중 사살된 이후, 전국적으로 보복성 폭력 사태가 확산되고 있음
 - 멕시코 보안국은 지난 2월 22일 엘 멘초 체포 작전 이후 멕시코 32개 주 중 20개 주에서 252건의 도로 봉쇄가 발생했다고 발표함
 - 더욱이 카르텔 조직들은 도로 봉쇄뿐만 아니라 차량 방화, 기업 공격 등 공공 인프라를 대상으로 산발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어 美 국무부는 할리스코주(과달라하라, 푸에르코 비야르타 포함), 타마울리파스주(레이노사 포함), 미초아칸주 일부, 게레로주, 누에보레온주 등 일부 지역에 대피 권고를 발령함
 - 멕시코는 美 최대 교역상대국인 만큼, 이번 사태로 인한 도로 봉쇄는 국내 물류망뿐 아니라 미국과의 국경 간(cross-border) 무역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
 - 특히 서부 멕시코에서 발생한 대규모 도로 봉쇄는 만사니요에서 과달라하라를 거쳐 북동부 타마울리파스주까지 이어지는 주요 화물 회랑을 차단하며, 최소 수일간의 물류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

2025~2026년 멕시코 CJNG 주요 영향 지역



참조 :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CJNG가 주로 활동한 지역
자료: Janes (검색일: 2026.03.03.)

- ▶ 해당 사태로 인해 멕시코 일부 지역 항공편 취소와 만사니요항 일시 폐쇄 등 운송 모드 전반에 병목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멕시코 물류 전반에 파급효과 확산

- 운송 모드별로는 항공·해상·육상 물류 전반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,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과달라하라, 푸에르토 비야르타, 만사니요 등 서부 노선 운항을 취소하면서 항공 화물 운송 부문에도 간접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
- 특히 항공 화물의 약 50%가 여객기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에서 여객기 운항 중단은 화물 적재 능력 감소로 직결되는데,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과 일부 주요 관문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나 지역공항 운영 차질로 인해 화물 픽업 및 배송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
- 해상 부문에서는 멕시코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만사니요항이 일시 폐쇄되었다가 재개했으나, 항만 외부 도로 봉쇄와 방화로 인해 컨테이너 반출입 지연이 지속되고 있음
- 만사니요항은 연간 350만 TEU 이상을 처리하며 멕시코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50%를 담당하는 핵심 아시아 수입 관문으로, 해당 항만의 차질은 공급망 전반에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

● 특히 서부 멕시코 노선 운행 기피로 트럭 공급이 급감하면서 국경 통과 구간의 운임 체류시간이 상승하는 한편, 화물 절도 위험까지 가중되면서 도로 운송 역량 저하 우려

- 육상운송의 경우 영향이 더욱 뚜렷한데, 서부 멕시코 지역으로의 운항을 기피하는 운송업체가 증가하면서 트럭 공급 능력이 빠르게 축소되었고 라레도·엘파소 등 주요 국경 통과 지점에서는 스팟운임 상승과 체류시간(dwelling time)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
- 하루 평균 2만 대 이상이 통과하는 라레도~누에보라레도 구간 역시 운송 역량이 빠르게 압박받고 있어 물류업계는 단기적으로 3월 첫째 주까지 지연이 불가피하며,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, 국경 간 운송 여력은 더욱 긴축될 수 있다고 전망함
- 한편, 멕시코는 이미 화물 절도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전체 운송업체 대상 절도의 82%가 폭력을 동반하고 있으며, 중부·서부 지역에 사건이 집중되고 있음
- 최근 폭력 사태는 직접적인 화물 범죄는 아니나, 치안 공백을 틈탄 추가 범죄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어 북미 역내 공급망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

참고 자료: <https://www.cnn.com>, <https://www.freightwaves.com> (검색일: 2026.03.03.)

중동 무력 충돌 격화... 항공·해상 물류 차질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흔들

- ▶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항공·해상 물류가 광범위하게 중단

 -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운항을 중단했고, 글로벌 항공화물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운임 상승과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

- ▶ 중동 항공사들은 운항을 중단했으며, 역외 항공사들도 노선 중단에 동참

 - Qatar Airways는 카타르 영공 폐쇄로 화물 운항을 일시 중단했으며, 영공이 안전하게 재개될 때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힘
 - Emirates의 화물 부문인 Emirates SkyCargo 역시 3월 3일 UAE 현지 시간 오후 3시까지 항공편을 중단하고 신규 화물 예약을 일시 제한함
 - Etihad Airways도 3월 3일 오후 2시까지 아부다비발·도착 항공편을 전면 중단함
 - Lufthansa Cargo는 텔아비브, 베이루트, 암만, 테헤란 등 주요 노선 운항을 3월 8일까지 중단했으며, IAG Cargo 역시 런던-아부다비, 도하, 두바이, 텔아비브 노선 등을 3월 4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힘
 - 중동 영공 폐쇄 직후 전 세계 항공 화물 공급량은 전주 대비 1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중동 항공사 전면 운항 중단, 타 항공사들의 걸프 지역 운항 중단, 우회 운항에 따른 적재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
- ▶ 아시아-중동-유럽 구간 일부 노선의 항공화물 공급량은 전주 대비 40% 이상 감소

 - 특히 중국/홍콩-유럽 간 걸프 경유 간접 노선은 75% 급감함
 - 반면 직항 아시아-유럽 노선은 13~14% 증가했으며, 중앙아시아 경유 노선도 확대됨
 - 카자흐스탄 알마티, 조지아 트빌리시,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 등의 경유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

- ▶ 항공뿐 아니라 해상 물류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,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MSC는 중동행 신규 화물 예약을 중단

 - CMA CGM은 걸프 해역 선박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, 수에즈 운하 통과를 중단한 뒤 희망봉 경유로 우회 운항하겠다고 밝힘. Maersk도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한 항로 운항을 중단함
 - 특히 전 세계 제트연료 물동량의 약 20%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에너지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항공유 가격이 급등했고, 단기 인도 프리미엄도 두 배로 상승함

- ▶ 세계 최대 항공화물 포워더인 DSV는 고객 공지를 통해 중동 운항 중단으로 인해 운송 지연, 스케줄 불안정, 단기 운임 인상이 불가피함을 경고
 - DSV는 항공기 재배치, 우회 운항, 일부 노선 중단으로 인해 중동을 넘어 주요 글로벌 무역로 전반에 영향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히고, 특히 극동-유럽, 아시아-중동 구간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언급함
 - 항공사들이 전쟁 위험 할증료를 도입하고 있으며, 위험 지역을 우회하면서 연료비가 증가해 약 10% 수준의 추가 운임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
 - 다만 중국발 수출 물동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사태가 수주 이상 지속될 경우, 중국발 운임 상승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됨
 - Air Cargo Network 소속 기업들은 기존 대비 10~20% 높은 가격에 블록 스페이스 계약을 확보하고 있으며, 긴급 화물 우선 배정과 해상-항공 복합운송(Sea-Air) 전환을 병행하고 있음
 - 또한 공역 재개 시 통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서류 점검과 통합 통관 조정을 시행할 방침임
 - 영국 물류기업 Woodland Group 역시 걸프, 홍해, 중동 허브를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 개별 리스크 점검과 대체 운송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권고함

- ▶ 중동 정세가 단기간 내 안정되지 않을 경우, 항공화물 운임 상승, 연료비 부담 확대, 해상 운송 우회에 따른 운송 기간 증가 등 복합적인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으로 확산될 가능성 존재
 - 특히 항공사들의 여객기 운항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, 벨리홀드(여객기 화물칸) 공급 회복도 늦어져 항공화물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
 - 중동 지역 긴장이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음

참고자료 : <https://www.aircargonews.net/>(검색일: 2026.03.03.)

슬로베니아, TEN-T 기반 코퍼항 관문 기능 강화...지역 공급망 화물 유치 전략

- ▶ 슬로베니아 정부와 코퍼항 터미널 운영사 Luka Koper는 코퍼항을 지역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며 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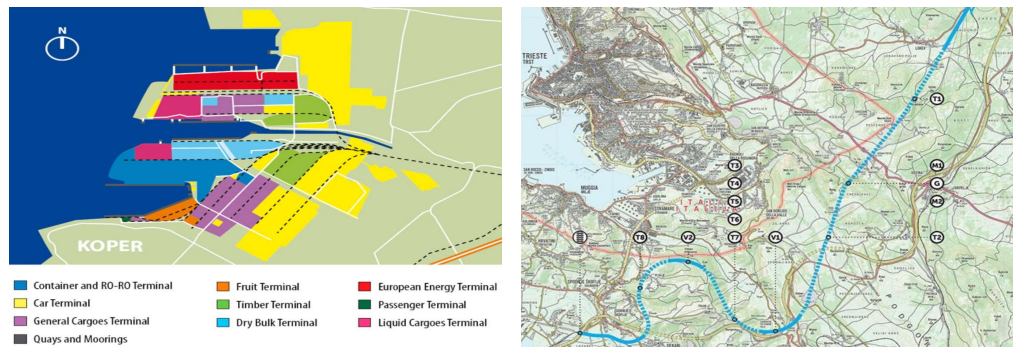
 - 코퍼항은 슬로베니아의 관문항 기능을 수행하며, 발틱해, 아드리아해와 지중해 지역의 TEN-T(Trans-European Transport Network) 회랑의 연계 항만 역할을 담당함
 - 코퍼항의 '25년 기준 화물 처리량은 23백만 톤으로 슬로베니아 자체 화물 77십만 톤, 배후국가 권역 화물 153백만 톤으로 중부와 동부유럽의 화물 처리량 비중이 높음
 - 이에 따라, 코퍼항의 화물처리 능력 강화와 배후지역 공급망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Luka Koper는 TEN-T 기반의 항만 개발 전략을 추진 중임

- ▶ 항만 개발 양허권을 획득한 Luka Koper는 코퍼항의 지역물류 관문 기능 강화를 위해 '25년을 기점으로 '28년까지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

 - Luka Koper는 '25년에 1억 5,026만 달러를 투자해 326m의 안벽길이 확장, 신규 선석 2개 증설, 접안 수역 16m 증심, 7만 제곱미터의 아드면적 확장 공사 착수해 '27년 말 준공할 예정임
 - 해당 인프라 증설을 통해, 연간 처리능력이 150만 TEU에서 180만 TEU로 20% 증가할 전망임
 - 또한, Luka Koper는 '26년에 2억 3,770만 달러를 투자해 북측 부두의 컨테이너 처리기능 강화와 완성차량 전용 야드 확장, 프로젝트 화물 전용 선석 증설을 통해 다목적 항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
 - 반면, 슬로베니아 정부는 향후 €451.1m를 배후철도망 연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 배후권역 국가 간 철도 운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동유럽 지역 내 코퍼항의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제고할 예정임

- ▶ 슬로베니아 정부는 TEN-T 프로젝트를 통해 코퍼항의 화물 유치 경쟁력과 물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

 - 슬로베니아 정부는 코퍼항의 철도 기반 모달시프트 비중은 51%로 Koper-Divača 간 철도 연계망 고도화를 주요 투자개발 부분으로 판단함
 - 배후권역에 대한 물동량 유치 경쟁력과 항만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된 Divača-Koper 제2 노선을 '26년 3월 말부터 상업운행 예정임
 - 해당 노선의 운행은 코퍼항의 철도 모달시프트 병목현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, EU의 지역물류 회랑 효율화에 기여함
 - 슬로베니아 정부와 Luka Koper는 Divača-Koper 노선 개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 '28년까지 €785m를 투자해 철도운송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

코퍼항 기능별 터미널 구획도 및 Divača-Koper 제2 노선 개발 현황


자료: <https://www.luka-kp.si>, <https://www.railwaygazette.com> (검색일: 2026.03.03.)

- 코퍼항의 인프라 확장과 TEN-T 연계 기반의 블록트레인 서비스 운영은 항만 자체 경쟁력과 유럽지역 공급망의 운영 효율성 강화에 기여
 - Divača-Koper 노선 운영에 따른 철도운송 서비스 리드타임 감소로 항만 혼잡에 의한 부가적 물류비용 발생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음
 - 해당 노선의 TEN-T 연계에 따라 납기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내륙 안전재고 비축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임
 -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향상되어 리스크 발생 시, 대응 옵션이 확대될 것임
 - 추가적으로, 강화되고 있는 EU의 탄소배출 규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철도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지출을 축소할 수 있음

『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모집 공고』

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

2026. 2. 20(금) ~ 3. 20(금)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
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
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 2026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
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
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

사업개요

1.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

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
수반되는 타당성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
- ① 인수합병형(현지기업 M&A 및 지분투자)
- ② 시설투자형(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)

지원내용

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기업
(법무/회계법인)을 통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

지원금액

최대 **2억원** 지원 (조사비용의 최대 **50%**)

2. 해외시장 조사·컨설팅 지원 사업

글로벌 물류거점 확보, 물류공급망 분석 및 설계, 현지 물류시장
조사, 해외법인 설립 등에 소요되는 조사 비용 지원

- ① 해외물류시장 진출 사전 지원
- ②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

지원내용

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, 국외출장비,
컨설팅비 등 직접 비용
(단,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은 외부 자문 비용으로 제한)

지원금액

최대 **5천만원** 지원 (조사비용의 최대 **50%**)

제출방법 국제물류정보포털(withlogis.co.kr) 공지사항 참조

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김동환 센터장 T 051-797-4913 E kdong@kmi.re.kr 성현정 전문연구원 T 051-797-4648 E hjsung@kmi.re.kr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국제물류정보포탈

카카오톡 플러스친구 ^{Ch}

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?
 '국제물류정보포탈'을 추가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!

KAKAO 채널 등록하기



1 카카오톡 검색창에 '국제물류정보포탈'을 검색합니다.



2 제일 오른쪽에 있는 '친구추가 아이콘'을 클릭합니다.